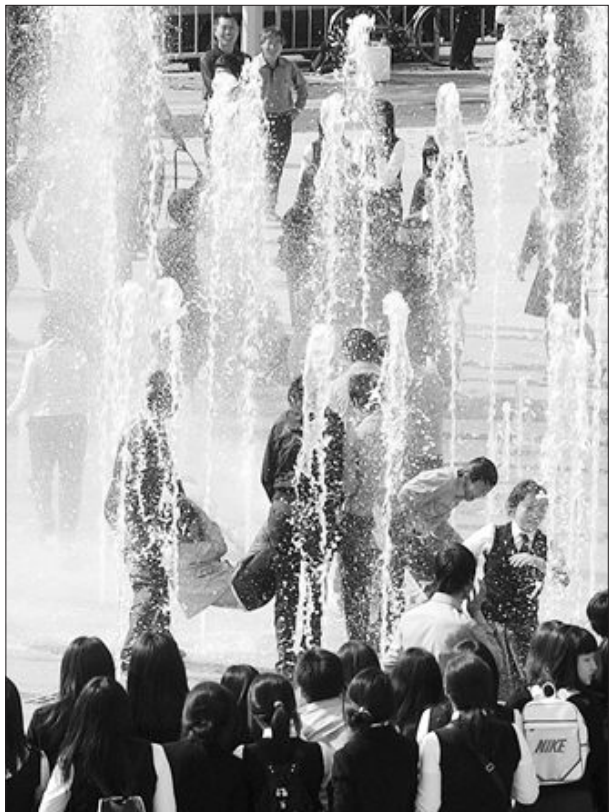


사진기자사의  
따뜻한  
잡

# 젊음이 좋긴 좋구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젊은 학생들은 감기도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분수대 앞을 지나면서 만난 중학생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와'하는 환호성이 들려 가봤더니 '분수대 물 맞히기' 장난을 치고 있던 군요. 이미 흠뻑 젖은 학생들이 멀쩡한 친구들을 분수대 물구멍에서 솟아치는 물줄기로 데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물이 젖는다면 약삭같이 버티던 학생들, 네 발을 붙잡혀 끌려가면서 "싫어, 하지마"를 외치던 학생들, 끝내 포기하던 군요.

아예 질세라 멀쩡한 아이들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학생들, 분수대 주변에서는 온통 난리가 납니다.

모처럼 활짝 웃는 학생들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웃는 모습 '잡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웃는 모습도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일까요.

어차피 한 번 겪어야 할 힘든 시기, 이왕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워킹잡자 jrwi@

# 오늘의 유머

## ■ 조폭의 연애편지

피터지게 그리운 속.  
여름이 우글대던 자리엔 어느새 '사시미'처럼 찬 바람을 몰고 달려든 가을이 바글바글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하도 오묘해서 영원할 것 같은 여름도 가을의 '갈부림' 앞에는 쪽도 못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말죽거리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덕배과'가 '돌쇠과'에게 쫓겨가듯 그렇게 여름은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내 가슴 속에 시작될 러브. 이 러브를 어떻게 그대에게 보여 드리란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내 가슴을 담아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 박터지게 그리운 그대.

그대를 향한 그리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때기를 그어사나마 달랠 수 있다면 손도끼로 손가락을 잘라 달래진다면 난 주저없이 그리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대는 내게 피터지는 그리움입니다.

그대를 떠올리면 칠성과의 싸움에서 사시미로 무장한 일곱명에게 포위됐을 때 보다 더 가슴이 떨리고 칠성과 두목의 배에서 흘러 내리던 피보다 더 빨간 그리움이 피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은 빨간 피보라입니다.

그 타는 그리움을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은 두꺼비 파에게 납치당해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갇혔을 때 보다 더 답답하고 목 만 남겨놓고 땅 속에 파묻혔을 때 보다 더 더욱 답답합니다. 밤 새 그리움에 몸부림치다 그대를 보는 순간의 기쁨은 동료들이 달려와 두꺼비파를 무찌르고 땅속에서 나를 꺼내줬을 때 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는 자지러집니다.

그대를 떠올리면 내 가슴 속 피는 뜨겁게 달아 올라 싸우다 잘려진 손가락처럼 내 심장을 팔딱이게 합니다.

혹시 갑작스레 잘린 손가락을 보셨는지요?  
갑자기 잘린 손가락은 신경이 죽지 않아 개구리보다 더 힘차게 팔딱이지요. 마치 물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처럼 팔딱입니다. 생선의 힘찬 몸 놀림처럼 내 심장은 심하게 팔딱입니다.

그대를 보는 순간의 기쁨은 동료들이 달려와 두꺼비파를 무찌르고 땅속에서 나를 꺼내줬을 때 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는 자지러집니다.

그대를 떠올리면 내 가슴 속 피는 뜨겁게 달아 올라 싸우다 잘려진 손가락처럼 내 심장을 팔딱이게 합니다.

혹시 갑작스레 잘린 손가락을 보셨는지요?  
갑자기 잘린 손가락은 신경이 죽지 않아 개구리보다 더 힘차게 팔딱이지요. 마치 물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처럼 팔딱입니다. 생선의 힘찬 몸 놀림처럼 내 심장은 심하게 팔딱입니다.

립 내 심장은 심하게 팔딱입니다.

하지만 심장의 팔딱임은 그대로 그리움이 되어 내 온몸을 휘감아 푼다. 내몸을 휘감아 푼 그리움은 두꺼비파가 날 뒤흔던 밧줄보다 더욱 죄어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사시미로 굶어 낼 수 있다면 망치로 후두부를 강타해 그리움을 접을 수 있다면 난 그리 하겠습니다만 그리움은 사시미로도 망치로도 달랠 수 없어 애꿎은 동생들만 데려다가 아구창을 한 방씩 날려버렸습니다.

아우들의 아구창 안 살이 해지고 부러진 이빨이 빨아져도 그리움은 여전히 아우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피보다 빨갛게 피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를 보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던 그리움은 그대와 헤어져 돌아오는 순간에 시작돼 밤새 내 안에서 두목에게 얼어터진 볼따구가 부풀듯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 내 지독한 사랑입니다.

나 그댜 위해 저 하늘의 별은 따다 줄 순 없지만 그대를 죽자사자 따라 다니는 제비처럼 생긴 감자국은 흔내줄 수 있습니다.

나 그대 위해 저 하늘의 달은 따다 줄 수 없지만 그대와 팔짱고 걸던 송가놈의 등은 따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두 녀석의 목과 등은 팔 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마는.

그대는 내게 늘 타는 목마름입니다.

상대편 조직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 느끼는 타는 같증. 그 타러온 눈들은 물도 주지 않고 계속 고문만 해대는 바람에 그 때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고문할 땐 물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갈증만큼 괴로운 일도 드무니까요.

그 때 느꼈던 같증. 그 타는 같증은 그 느낌 그대로 그대를 향한 내 가슴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대는 거품 아니, 자주 타는 같증이 되어 내 온 밤을 고문합니다. 때론 보고픔으로, 때론 그리움으로 내 온 밤을 해집어 놓습니다. 칼잡이 칠성과 두목 칠성이 칼에 배때기를 저승당했을 때 보다 더 쓰리고 아파옵니다.

순대가 익어갈듯한 더위와 함께 피 튀기도록 그리운 속.

사랑합니다.

# 뉴스퀴즈

86.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기동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중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신봉증 ② MP3 ③ 전자사전 ④ 휴대용 전화기

##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음 9월 13일 庚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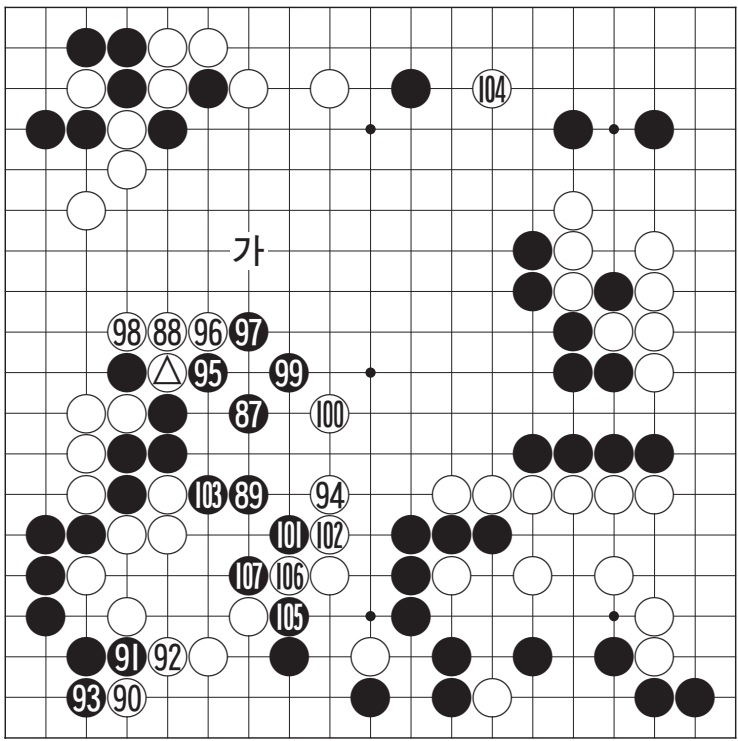
子	36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심스럽다. 48년생 모든 의향을 실리워주며 바래라. 60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면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72년생 독신자는 의지를 해보라. 84년생 큰 고문을 없다. 행운의 숫자: 27, 31
丑	37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49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1년생 마지막 속입수를 조심하라. 73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행운의 숫자: 31, 38
寅	38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50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62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74년생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고 우선 민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32, 43
卯	39년생 일은 자식 찾는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1년생 절대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큰 손해를 본다. 63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75년생 산뜻한 새 마음으로 잠깐의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43, 45
辰	40년생 주변의 시기가 줄어들 수 있다. 52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나 서둘러야 한다. 64년생 숨은 동향이나 주변을 보면 할 일이 많아 보인다. 76년생 시기상조나 마지막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02, 04
巳	41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53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65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기분이야. 77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11, 22
午	42년생 서로 다투며 만나기 좋은 수는 없다. 54년생 부친을 찾아보고 문안사를 드려라. 66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펴면서 가야 한다. 78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시비 송사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4, 14
未	43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5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7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정을 확보해야. 79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토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05, 13
申	44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만둠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8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묘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80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06, 15
酉	45년생 적시에 마무리 작업으로 의향을 풀고 실리 편으로 집중하라. 57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9년생 생기가 발산되고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81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07, 17
戌	46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8년생 속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70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우가 있다. 82년생 신중했던 친목도 보라. 행운의 숫자: 09, 10
亥	47년생 별 뜻 붙듯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9년생 중간간의 음모를 살펴보고. 71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절차성을 잃지 마라. 83년생 흑담의 일에 오르내려도 관게지 마라. 행운의 숫자: 18, 2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원익약품 062-383-5883



## 광주시바둑협회 회장배바둑대회 살기에 급급한 흑 대마 5보(87~107)

최강부  
준결승 2국  
白 심재욱 6단  
黑 노기철 5단

백 △로 끊기는 순간 왼쪽의 흑 한 점이 움직이는 수단이 없어졌다. 요석인 흑 한점이 잡히면서 공격목표가 사라지고 흑 4점만 공중에 떠서 고달픈 신세가 되었다.

흑 87, 89로 모양을 잡았으나 백은 88로 늘어 좌편이 부풀어 오르는데 흑은 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노기철 5단도 심재욱 6단의 매서움을 의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봉을 피하고자 103까지 제자리걸음을 수없이 하면서 집모양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흑 95는 노기철 5단의 행마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이 수로는 그냥 97로 뛰어아 했고 99로도 무조건 '가'에 뛰어 좌편이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 했다.

심재욱 6단은 일단 형세가 유리해 지면 무리를 안하는 스타일. 흑 대마를 세차게 몰아칠 법 한데도 백 98로 안전하게 한점을 잡아두고 100으로 두어 은근히 두터운 수를 두고 있다.

심재욱 6단이 승리를 예상한 듯 104로 상변에 힘차게 뛰어들자 노기철 5단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흑 105로 나가 끊어 승부처를 찾고 있다. 과연 무슨 수가 숨어 있을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소식

### 윤준상 6단, 배준희 2단 제압

윤준상 6단이 지난 21일 한국기원에 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선 B조 리그 동돌 재대국 토너먼트 결선 배준희 2단을 맞아 169수 만에 흑 불제승을 거뒀다.

윤 6단은 3인 재대국 토너먼트에서 부전승으로 1회전을 통과한 김수용 2단과 오는 26일 결승전 진출을 다룬다.

이날 동돌 재대국에서 패해 B조 3위로 몰려나온 배준희 2단은 최종 순위 결정전에서 A조 3위를 차지한 기사와 5, 6위전을 치른다. 한편, A조는 박승화(4승1패) 2단이 3위를 기록한 가운데 허영호 6단(3승1패)-오순진 3단(2승2패)의 최종국을 남겨두고 있어 동돌재대국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 굿모닝 잉글리쉬 <1017>

I locked myself out.  
열쇠를 놔두고 방문을 잠겼습니다.

A : May I help you?  
B : Yes. I locked myself out.  
A : Ok. Just a moment. I'll send someone up to the room.  
B : Oh, thank you.

A : 뭘 도와드릴까요?  
B : 네 열쇠를 놔두고 방문을 잠겼습니다.  
A :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B : 네, 감사합니다.

\* Lock out : 밖에서 문을 잠그다.  
\* I was locked out. : 열쇠를 놔두고 나왔습니다.  
\* send up to ~ : (~을) ...로 보내다  
\* Just a moment = Wait a minute.

## 오하오우 니혼고 <1017>

ごきぶりが一番(いちばん)嫌(きら)いなものよ。  
바퀴벌레가 제일 싫어

A : キャッ、ごきぶり。  
B : どどこ。この部屋(へや)ごきぶりが本当(ほんとう)に多(おおい)ね。  
A : あそこの隅(すみ)に隠(かく)れてるわよ。私(わたし)、世(よ)の中(なか)で一番(いちばん)嫌(きら)いなものよ。  
B : すばしっこくて、何(なに)か生意氣(なまいき)だよな。

A : 까~악! 바퀴벌레!  
B : 어디 어디? 이 방에 바퀴벌레 진짜 많아!  
A : 저기 구석에 숨어 있어! 나 세상에서 바퀴벌레가 제일 싫어!  
B : 재빨라서 건방져 보인다.

ごきぶり: 바퀴벌레  
隅(すみ): 구석  
隠(かく)れる: 숨다  
世(よ)の中(なか): 세상

## 니하오 쑹구위 <207>

哪个航班?  
몇 시 비행기죠?

A : 王总, 你和麦总哪天来北京?  
Wángzǒng, nǐ hé mài zǒng nǎ tiān lái běijīng?  
왕 총, 니 한 귀머 총 니 령엔 라이베이징?  
E : 这个星期三。坐飞机来。  
Zhè ge xīngqī sān. zuò fēijī lái.  
짜 거 삼 칠 셴. 우회 폐이 쥬안래.  
A : 哪个航班?  
Nǎ ge hángbān?  
나 거 응 반?  
B : 上午九点起飞, 十一点多到。  
Shàngwǔ jiǔ diǎn qǐ fēi, shí yí diǎn duō dào.  
상 우 지우 디엔 짜 퉁이, 스 아 디엔 똘둑 도오.  
A : 왕사장님, 왕사장님과 맥사장님은 언제 비행에 오실까요?  
B :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다.  
A : 몇 시 비행기죠 오시죠?  
B :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이고, 11시쯤 여기서 도착할 겁니다.

航班 [hángbān] [비행기, 비행] 行程표, 항공편

## 한자 이야기 <634>

苦肉之策(고육지책)  
괴롭힐 고, 고기 육, 어조사 지, 계획 책

고육지책(苦肉之策)은 적을 속이기 위해 제 몸 괴롭히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는 계획이다.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계획이다.

후한말(後漢末) 오(吳)의 손권(孫權)과 형주(荊州)의 유비(劉備)가 연합하여 위(魏)의 조조(曹操)의 대군과 싸우는 적벽전투(赤壁戰)가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었다. 조조의 군사는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장강(長江)에 이르렀으나 군사들은 풍토병과 배 멀미에 시달려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때 방통이 연합계(連環計)를 내어 쇠사슬로 조조의 선단(船團)을 모두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때 연합군 총사령관인 주유(周瑜)는 화공계(火攻計)를 생각하고 있으나 유나라에서 보낸 협자를 때문에 함부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심복인 황계(黃蓋)가 찾아와 스스로가 희생하는 거짓항복의 사항계(詐降計)를 내놓았다. 즉 황계가 작전회의에서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건의하다가 형통에 묶여 만신창이가 되어 조조에게 투항한다는 내용이다. 황계는 조조에게 항복하려 가면서 배에 기름을 잔뜩 실어놓았다가 조조의 함대에 가까이 가자 불을 붙여 일시에 불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유는 적벽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